

현장취재 : 고황골 일대의 밤 풍경

절제유무되는 지성의 거리

“군대가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부터 회기까지 막걸리 집이 주류를 이루었죠. 지금처럼 화려한 옷가게, 호프, 카페가 들어설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국문과 85학번인 이군은 학교 주변의 변화된 모습에 가끔 생소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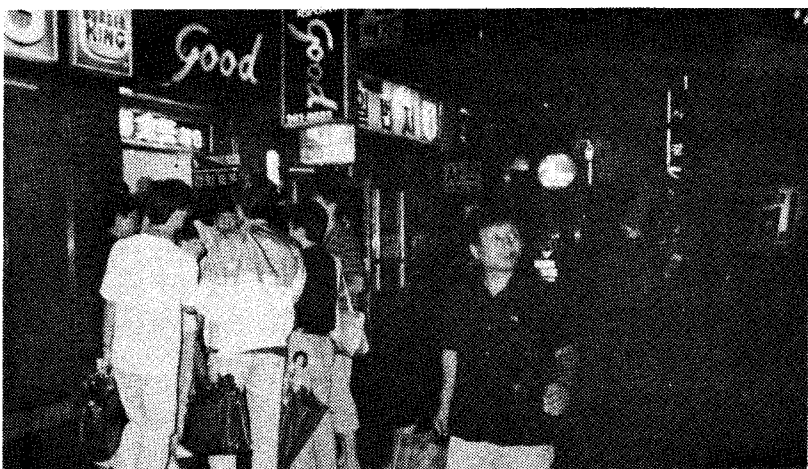
예전에는 ‘대학문화=막걸리문화’로 인식될 만큼 대학가의 문화는 서민적이었고, 한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카페와 호프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대학문화가 카페, 호프문화로까지 불릴 정도이다.

이는 대학문화가 소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 풍조에 몰려져서 가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가의 풍조는 거리가 어두워 질 수록 그 정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야! 영업하는지 알아봐!”하고 소리치며 00호프집 앞에서 서성이는 세사람처럼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심야영업을 하는가 하고 내려진 사타구니를 훑어 보는 학생들의 모습, 심야영업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2~3명 남짓한 무허가 업소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성시를 이루고, 포장마차 또한 대목이 따로 없이 매일 밤 북적댄다. 그리고 단속의 법적근거가 애매한 수퍼마켓에서 간이 탁자를 이용해 술을 마시는 모습,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아슬 아슬하게 택시를 잡

는 모습, 이렇듯 다분히 소비적이고, 무질서한 행위들로 고황골 주변의 밤 거리 풍경이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학생들의 폭력행위까지 덧붙여져,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까지 연출한다. 특히, 최근들어 대학생들의 폭력사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너 그러면 안돼”, “왜 갑자기 별거 아닌걸 갖고 그러냐”, “야! 너희들 왜 사소한 일로 다투냐, 이런 짓을 때도 됐잖아”, “너가 뭘 안다고 그래 xx야”, “똥야” 등의 대하되는 지난 13일 저녁 8시경 한 맥주집 앞 약국근처에서 벌어진 세사람의 말다툼 내용이요. 이러한 말다툼이 곧 주먹다짐의 계기로까지 발전돼, 도로에서 30여초 동안 싸우다 경찰에 의해 중단됐었다.



카페와 호프집의 기하 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대학 문화를 호프문화로 부를 정도이다

증가하는 대학생의 폭력행위 사회적 윤리 붕괴현상서 기인 소비적 문화 척결 위해 자율적 규제 체계화 필요

이 사건을 지켜 보던 한 학생은 “참거리를 걷다보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증폭적이고 감정적인 것 같아요.”라고 대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학교 앞 파출소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한달에 평균적으로 10~20여명의 대학생이 폭력

최후전적 가치로 추구되면서 황금민주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풍토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내에는 밤 12시 이후부터 학내로 찾아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런 모습은 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지속되어 왔지만, 지난 89년 심야영업단속 이후부터 급속히 늘어났

다. 이들의 대부분은 학교 밖의 술집이 문을 닫고 난 후, 술 마실 장소를 찾아 들어오는 학생들과 호젓한 시간을 보내려는 남녀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가 술취하면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 나가질 않냐. 보기가 안좋은 모습들도 있더군요”하며 학생들의 이런 모습에 어이없는 미소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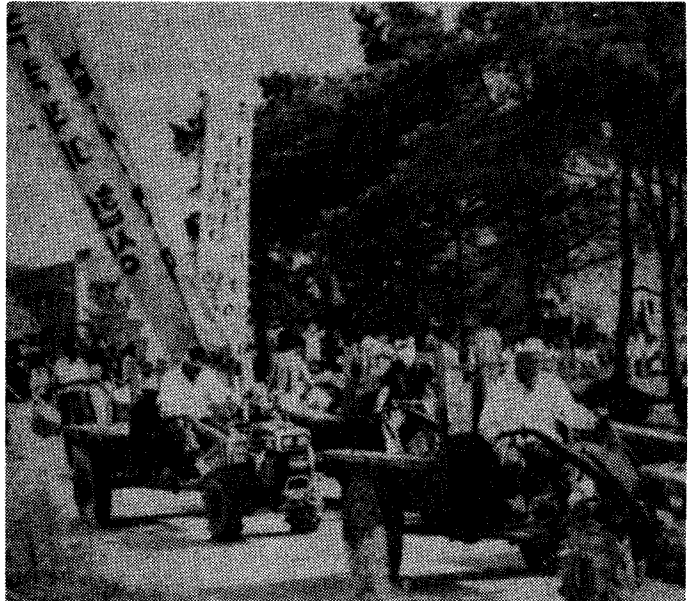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이러한 출입은 무절제한 생활과 학내 폭력행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대학생들의 학내 폭력사건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원자율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캠퍼스 폭력은 인근 고등학생과 불량배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규율대를 관리하는 총학생회 사회부장 김주환(문리대 물리·4)군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에는 1백여명의 고등학생과 불량배가 학내에 난입해 밤11시부터 술을 마셨고, 이튿날인 9일에는 두배가 늘어난 2백여명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때로는 이들이 칼이나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캠퍼스 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고 총학생회에서 구국선봉대를 중심으로 규율대를 조직하여 활동에 나섰다. 그로인해 고등학생이나 불량배들의 난입은 현재로써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향으로 캠퍼스 폭력근절과 자율적인 학원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먼저 잘못된 의식구조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영(사학·76학번)씨는 “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자치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제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이 근처의 질서를 학생들이 세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출세라도 학내와 그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범법사건의 발생 빈도가 낮다고 말들을 했었고. 그러나 요즘은 사회의 여러가지 병리현상들이 대학가에 침투하여 건전한 전통과 미덕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상실해 가지 않는다는 노파심이 드네요. 아무리 사회가 썩어도 대학생 만은 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학문화 풍토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 조인성 기자 >



최근 농어촌경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관세율을 유지한채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고 할때 현재 하나만을 봐도 1천4백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 총 취업자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때 이들이 농업에서의 고용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면 전체국민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체결된다는 것은 한국의 식량자급과 자립경제를 위협당하고 독자적인 농업정책수행 마저 제한되는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여길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농산물수입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식량의 종속화를 초래할 것이고, 또한 소자농에 대한 현실

‘9.7농민대회’ UR 저지투쟁의 포문열어 군단위 지도력 강화로 대중성 획득해야

적 대안이 없이 도시산업자본 증가 시킬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리한 정세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단위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농민회 총연맹(이하·전농)을 결성하였다.

지난 6월 결성된 전농은 첫번째 조직적인 대의사업의 일환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어촌 발전 대책안 저지’를 위한 제1차

농촌위기속에서 강화된 조직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현황과 전망

전국농민대회를 치루었다. ‘무엇을 심을까? 누구의 땅을 빌릴까? 누구를 데려다가 농사를 지을까?’ 이 세마디는 지난 7월 있었던 제1차 전국농민대회에서 이 중한(전농·대변인)씨의 연설중에 있는것으로 그 어떤 말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우리 농촌의 파탄정황을 표현하고 있다.

전국 9개도시에서 농민·학생·시민 3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 다발적으로 열린 이번집

서는 각단위 농민회의 현황보고와 평택농민회의 골프장건설, 용산기지이전 반대투쟁 결의문등 UR저지 투쟁뿐만 아니라 단위 조직당의 당면과제에 시민·학생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전농내에서는 이번집회를 집회사수정도로 기대했었지만 5.9이후 상당히 침체되어있던 농민조직은 사서히 전열을 정비하며 각단위조직의 강화에 역점, 전농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중앙에 집결

목표를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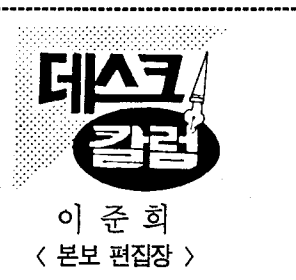
일단은 UR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것과 쌀값제압방기 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고추값, 염연초제압방기에서부터 건강문제, 적십자회비, 강제부역 둘러리, 체육진흥회비, 교육문제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연결돼 있는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농 자체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농민운동이 대중화되고 전농이 조직화되면서 전교조, 생산조직, 청년조직, 종교계등 전보적인 조직과의연대를 소홀히하고 다분히 고립적으로 전농 중앙만 바라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것을 들수 있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군단위 지도력을 강화해 모든 사안을 군단위에서부터 실행하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앙농민회는 각지역과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해내고 농민운동의 지도력을 세워나가면서 투쟁에 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각단위조직이 강화되고 중앙조직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농민당면과제의 해결은 물론 민중생존권을 앞당기는 파행적 전진과 퇴진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 손영희 기자 >

무색해진 五月農夫八月仙



이준희 < 본보 편집장 >

결실의 기쁨 사라진 이들의 농촌

마지막으로 수확의 세시는 일년농사의 수확기에 들어서 그해농사에 대한 감사함과 참고에 그득히 쌓인 곡식의 풍족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세시기로서 다른 어느 세시보다도 중요시 되어 왔으며 특히나 일년내 출세한 쌀출력 농부들에게 더 말할나위도 없다.

추석을 옛사람들은 가배일(嘉俳日), 중추(仲秋)라 지칭해왔다. 월별로 우리나라의 세시풍습들을 정리해 놓은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신라 3대왕인 유리왕때 궁중의 율부를 두패로 나눠 각각 윤년 한사람을 우두머리로 각부에 소속된 농부들이 한팀이 되어 7월16일부터 한달간 베를 지은 다음 8월 보름날 그 결과를 보아 승부에 진탐에서 온갖 음식과 술을 만들어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이것에서부터 추석이 유래되었다 한다.

아름다운 추석은 우리민족에게 삼대명절중의 하나로 곡식은 이미 익고 가을의 수확도 멀지 않은 시기이므로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농부들에게는 여름사이에서 쉼을 갖는 가을에 한해 두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 생산한 햇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고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한 여름 고생한 농부들 가을에 신선부럼지었다는 뜻의 오월농부팔월선(五月農夫八月仙)을 실감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였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나뭇가지들의 시원스런 바람과 만물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가을이다. 우리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러나 풍요로운 이 계절에 정작 풍요로움과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할 농촌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항상 가을이되면 늘어가는 부채에 시달리게는 농촌이다. 농촌의 현실은 외면한 채 대기업 살리라고 농산물 수입 개방하려는 정치인들이 야속할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먹거리’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나 달라진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다. 세시풍습이나 추석이니 하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몇 백만원의 축이 들었을 만한 제철 백화점들이 매달아 놓은 ‘추석맞이 대잔치’라고 쓴 대형포스터 속에서 오월농부팔월선(五月農夫八月仙)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업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 하이사시, UBR, SMC블록,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 모노류, 렉스드롱, 노브롱,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빙상부, 알로에비누, 풍동 등
- 화장품사업부 : 아르도아, 마네르, 에상스, 해라나투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 분산원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제약사업부 : 인터레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학부문

- 화성 1사업부 : PVC 스트레이트 레진, 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성 2사업부 :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성 3사업부 :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틸렌사업부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DPE)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럭키금성